

중소 해외 설비투자 지원 확대... 글로벌 거점 2곳 신설

중진공, 규모·지원방식 조율
올해 美 실리콘밸리에 KSC
GBC 1곳 추가 日 오사카 유력
온라인·물류 지원 예산 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를 주가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중진공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신규사업추진반에서 규모, 지원 방식 등을 올해 안에 결정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미국 트럼프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진공이 운영해 현재 16개국, 26곳에 두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 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는 올해 각각 한 곳씩 늘린다. GBC는 진출 수요가 많은 일본 오사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KSC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낙점됐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전쟁 도발로 해외 수출, 진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신시장진출지원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자세히 보기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GobizKorea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통한 중소기업의 B2B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진수중 글로벌소평을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간: ~ 3.18.(화) 18:00 까지	진수중 자사물 진출사업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간: ~ 3.18.(화) 18:00 까지	진수중 전자상거래수출시정진출(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간: ~ 3.18.(화) 18:00 까지	진수중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기간: ~ 3.31.(월) 18:00 까지
---	---	--	--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B2B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 화면.

자금(5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등 다양하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며 물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으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 내용을 추가했다.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은 대외 리스크 분산, 수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출 다변화 기업 위주로 중점 지원한다.

중진공은 또 미국의 보편관세부과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GBC를 중

심으로 역할도 분담했다. 워싱턴 GBC는 정책 일관, 시카고 GBC는 바이오·의료 기기, 뉴욕 GBC는 테크서비스, LAGB C는 소비재(뷰티·푸드) 등이다. 또 올해 GBC와 KSC를 한 곳씩 추가하면 중진공이 운영하는 전 세계 거점은 16개국, 28곳으로 늘어났다.

중진공 양동민 온라인수출처장은 "중소기업들이 우수 제품을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B2B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사후

관리 등 수출지원에도 힘쓸 것"이라며 "올해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 지원, 공동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3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는 올해 2월 현재 해외바이어 35만명, 국내 중소기업 약 8만6000개사, 상품 총 31만건이 등록돼 B2B 온라인 수출 참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진공은 또 올해 처음 '테크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400개사를 돕는다. 이는 1곳당 350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디지털·AI기술 등 서비스 수출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클라우드 및 데이터 활용비용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스마트트레이드허브'도 준비하고 있다. 전용 물류센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 하루 1만4000건을 처리하면 건당 4650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연간 총 268억원의 물류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두산에너지빌, 사우디서 발전소 수주... 중동시장 공략 가속

사우디 전력사업 2.2조 수주 성과
'비전 2030' 전력 인프라 사업 확장
한전 컨소시엄 협력 EPC 입지 강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다각화 정책을 기회로 삼아 현지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본격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 정책에 맞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며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전 컨소시엄과 EPC 계약 체결

1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프로젝트 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과 2조 2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루마1·나이리아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인 셉코3(SEPCO-3)와 컨소시엄으로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지난 2019년 9월 두산에너지빌리티 직원들이 가스 터빈 초도호기 최종조립을 위해 로터 블레이드를 케이싱에 설치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사우디 전력조달청(이하 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루마1과 나이리아1 프로젝트는, 각각 리아드 북동쪽 80k

m와 470km 떨어진 곳에 1800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1기씩 건설해,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을 SPPC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SPPC와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했다.

◆현지 네트워크로 기회 넓혀

이번 가스복합 사업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주도의 '비전 2030'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자국의 발전용량을 3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가동중인 석유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돌려 2030년까지 가스발전 50%, 재생에너지 50%로 전환할 계획이다. 루나 1·나이리아 1 발전소도 가스복합 확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향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전의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설비 규모가 2025년 92.9GW에서 2030년 123.2GW로 연평균 6GW 규모의 발전소가 증설될 전망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성장해왔다. 지난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납품하며 해수담수화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이번 계약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맞물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건설 수행 기술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IG넥스원 중남미 방산 시장 정조준

'콜롬비아마르 2025' 참가
전시회 관람·선물 증정 행사

LIG넥스원이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 컨퍼런스 '콜롬비아마르 2025'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LIG넥스원은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콜롬비아 까르파헤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 컨퍼런스 '콜롬비아마르 2025'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콜롬비아마르는 조선해양·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콜롬비아 해군과 국영 조선사 코텍마르가 격년제로 주최하는 컨퍼런스 및 전시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LIG넥스원은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C-Star)', 경어뢰 '청상어' 등 해양유도무기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해 HD 현대중공업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전시회 관람 및 선물 증정 등 격려행사를 가진다.

LIG넥스원은 중남미를 수출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2011년 현지사무소를 개소하고 2012년부터 콜롬비아 방산·보안 분야 국제전시회인 'EXPO DEFENSA'에 참가하는 등 현지 획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LIG넥스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군 현대화 움직임에 발맞춰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상공인 판 팁스 첫 시행... 정부, 최대 2억 사업화자금 매칭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 시작
투자IR피칭, 박람회, 컨설팅 등 지원

민간이 투자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2억원까지 추가 투자하는 '소상공인 판 팁스'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에게 선 투자하면 정부 예산에서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팁스 II' 사업으로도 불린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 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우

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자격을 갖춘 22개 민간투자사를 선정해 있다.

이후 소상공인이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관기관인 초기투자역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투자(LIPS I)'를 받은 소상공인도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신청해 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